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이후의 일이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특한 민족적 자부심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13.9%가 외국 이민자와 그 후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1년 4월 말 현재 한국사회는 전체 인구의 2.8%가 이주 외국인이며 숫자로는 135만여 명에 달한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쉽게 융화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이들과의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에 대해서 전문적인 예방 조치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념이나 체험의 배타성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문화현상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있어 종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수용하는 수단이 된다. 대다수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한국의 종교 상황처럼 개인이 주체적으로 종교를 선택하지 못한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종교적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슬림’ 자녀들에게도 이슬람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전수되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에서 세계화와 한국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적 사회현상의 한국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을 통해 바람직한 종교 문화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사회, 외국 이주민, 다문화 가족, 종교적 갈등, 상생과 공존, 대순사상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논의의 관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¹⁾가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이때 관심의 초점에는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였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결혼 이민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개도국 출신이었으며 낮은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동정여론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추이에 2005년부터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4월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 두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정책 5개년계획’(2006. 5. 26.)을 수립하였고, 2007년 10월 제2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목표, 11개 전략²⁾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법령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거주 외국인은 1,354,414명으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비중은 1995년에 약 27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만인 2005년에 74만 명, 2008년에는 약 1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 UN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2020년에 5.0%, 2030년에는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구나 국내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2050년에는 이주 외국인의 비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대되고 사회구성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과 혼인이 증가하여 결혼 이민자는 12만 명을 넘어섰고, 국제결혼 비율은 11%를 상회하고 있다. UN은 2050년 한국인구의 13.9%가 이민자와 그 후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아직은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공주: 충남발전연구원, 2008), 5쪽.

2) 1.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3. 질서있는 국경관리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 이민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 - 신속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2. 질 높은 사회통합 4. 외국인 인권옹호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단속·보호과정의 인권보장 철저
-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구축
-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현재 정부정책 사안으로 시행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 소관부처들은 국무총리실, 행안부, 복지부, 문화부, 여성부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 부처에 산재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진행해 온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개별적, 전시적, 일회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적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체류 이후 정착단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³⁾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19일자로 ‘다문화통합기본법안’이 국회에 입법 예고되었다. 제안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밝혀 지금까지 나온 관련 법 가운데 다문화 사회의 다원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장 심도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⁴⁾

제3조에서는 “사회에서 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별행위가 근본적으로 종식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게 하는 등 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여 이주민과의 원만한 융화를 위한 국가적 비전을 선언적이나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체험의 배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예방조치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종교에 관한 정보 또는 정책적 측면에 있어 가급적이면 불개입 내지는 불간섭원칙을 견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주민들에게 종교는 문화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문화현상이다. 달리 말하면 종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의 삶의 다양한 표현 양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데 종교는 중요한 쟁점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경시와 오해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소이며, 이것이 심화된다면 사회적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한국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할 다문화사회에서 대화와 공존의 지혜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자기만의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들 모두가 다문화사회의 주체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문화적 사회현상의 한국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상적 기저를 증산의 언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3) 『포천시 다문화 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포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5쪽.

4) 박승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서의 종교적 갈등』, 『민족연구』 제42호(서울: 한국민족연구원, 2010), 116쪽.

II. 다문화사회 현상의 한국적 전개

한국 사회의 전통은 농경과 유교가 두 기둥을 이룬 사회라고 할 수 있다.⁵⁾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벼농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벼농사는 단시일 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주로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는 대가족이라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자연히 효를 축으로 한 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족문화는 생산과 소비의 장, 생활과 교화의 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윤리가 곧 사회윤리로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교는 사상적 기저로서 이런 사회제도를 지지하였다. 가족 간의 질서와 조상숭배를 중요시함으로써 가정이 곧 국정의 기반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질서도 가족 내의 세대 원리와 유사한 세대 간의 서열 관계를 따르게 되었다.

유교적 가족주의에서 가족은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미래의 후손에까지 연결되는 연속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조상의 유업을 유지, 발전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큰 사명이었다. 제사를 통한 조상숭배, 가산의 유지와 확대, 이를 계승할 아들의 출산을 통해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사회적 과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 관해 대략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의 급진적인 전환이다. 한국 사회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위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구조는 공업화라는 획기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30여년 만에 한국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되었다.⁶⁾ 산업구조의 공업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부추겼으며 사회전반의 도시화를 가져왔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대가족 문화가 해체되어 가족세대가 단순화 되었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개인화와 집단이기주의가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즉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가졌던 가족문화의 가치관과 사회적 순기능들이 변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이다. 1960년대 당시의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여겨졌다. 이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더불어 경제 및 보건의료의 발달은 출산율을 20여년 만에 1/3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그리고 1983년에는 2.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지속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 10년간 출산수준은 1.6명 내외에서 유지

5) 이광규,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3쪽.

6)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서울: 나남, 1993), 225쪽.

되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에 와서야 기존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는 완화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평균 출산율은 2005년 1.08명 등 지난 10년간 1.2명 내외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덩(hypothesis of low fertility trap)’에 빠질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⁸⁾

한편,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고출산 시기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2020년부터 차례대로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저출산 추이와 맞물려 세대 간 인구 규모의 격차를 한층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제반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현상은 내수 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고 생산적인 재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⁹⁾

셋째,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증가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 이와 결부된 3D업종의 기피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을 증가하게 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들의 농촌 기피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웅태교수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한 과정을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제1세대’는 6·25 동란 이후에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형성되었으며, ‘제2세대’는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찾아온 동남아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제3세대’는 2000년 이후에 한국 농촌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을 어머니로 둔 다문화가정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구분하였다.¹⁰⁾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12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 구성비의 2.1%를 상회하고 있다. UN의 보고서와 아울러 국토연구원의 『국토비전 2050 수립 추진』¹¹⁾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과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 인구 구성비의 0.11%에서 2006년 1.88%로 17배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는 5%, 2050년 9.8%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에는 인구 10명당 외국인이 1.5명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영국과 같은 수준의 다문화사회로 진입

7)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출산율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2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각년도.

8) 이삼식,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제172호(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5-6쪽 참조.

9) 같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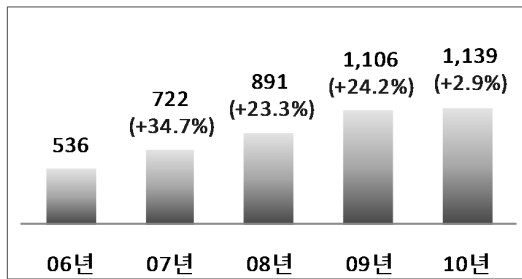
10) 조웅태,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과 다문화가정』, 『신종교연구』 제21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9), 160쪽.

11) 『국토비전 2050 수립 추진(Ⅱ)』(국토해양부, 2010.2.), 5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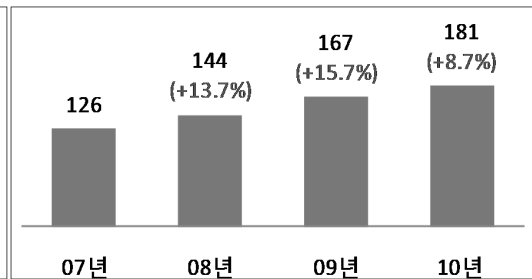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세기에 들어서기까지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농업국에서 공업화라는 산업구조의 급진적인 전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와 결부된 3D업종의 기피현상 등이 그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증가현상은 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켰다. 단군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단일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통성을 구축해 온 한국 사회의 민족적 정서는 외국에서 이주해 온 다른 인종과 혼인하거나 이웃하면서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의 가치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축적된 다문화사회 현상의 추이를 보면 우리 사회가 그 이전에 경험했던 다문화현상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¹²⁾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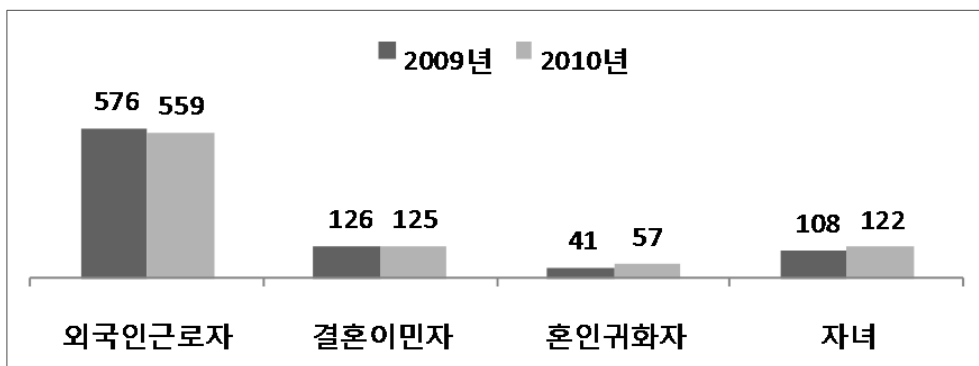


〈도표 1〉 외국계주민 변동추이



〈도표 2〉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변동추이

*단위 : 천 명



〈도표 3〉 '09년 대비 유형별 증가현황

*단위 : 천 명

12)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0.6.), 2쪽.

위의 <도표 1·2>에서 2010년 외국계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변동 추이가 2009년도에 비하여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3로 축소되고 외국계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율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2009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에 혼인 귀화자와 기타 사유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자는 30.8%, 외국계 이주민 자녀수는 13.2%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³⁾ 즉 다문화사회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증대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현실은 아직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빈곤 계층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는 52.9%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못 미치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실상 또한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에 대한 중도 탈락은 일반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166배, 중학생은 2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가정의 이혼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⁶⁾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가 공개한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¹⁷⁾에 따르면 지난 해 결혼 이주여성이 상담한 총 건수는 5만 4194건으로 2009년 대비 24.7%가 증가하였다.

13)

연도 \ 유형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혼인귀화자	기타사유자	외국계 주민 자녀
2009	575,657	125,673	77,322	41,417	32,308	107,689
2010	558,538	125,087	80,646	56,584	39,877	121,935

* 자료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3-4쪽.

14)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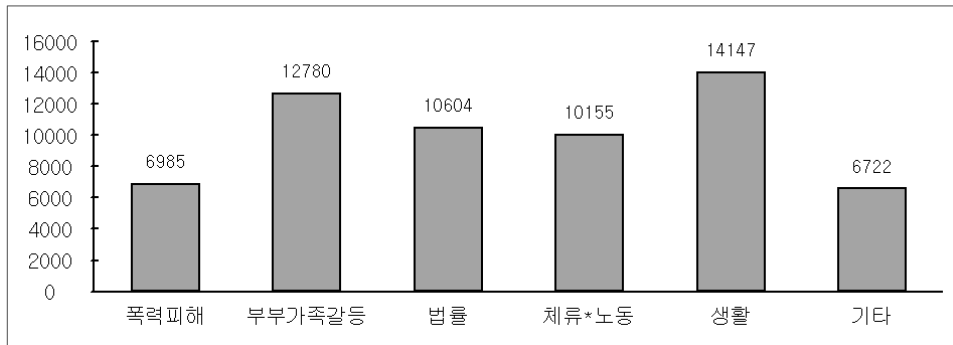
15) 정상호,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프레시안》, 2009.9.8.

1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 자료 : 통계청, 『2009년 이혼통계 결과』.

17)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5쪽, 11쪽.



*단위 : 건

〈도표 4〉 상담내용별 통계

위 〈도표 4〉의 상담유형별 통계를 보면 생활문제, 부부 가족갈등, 법률, 체류·노동, 폭력피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폭력피해 상담 중 4,672건이 가정폭력, 법률상담의 7,734건이 이혼상담임을 감안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부부·가족 간의 갈등이 상담의 주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의 갈등 요인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한 사회의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존속을 이상으로 한다. 이질적 문화 속에서 자라 결혼으로 만난 부부에게는 특히 그런 문화적 차별에 대한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이질적 행위로 표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의 부부갈등의 사례는 다문화가족 내부에서 이런 인종적, 문화적 차별의식을 결혼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 문화집단들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타자화 및 서열화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내재된 종교 문화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 현상은 미래사회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Ⅲ. 다문화사회의 갈등양상과 종교

현재 한국의 사회 문화 현실을 특정 짓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종교 다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이른바 세계종교들과 19세기 이

18) 박승길, 앞의 글, 125쪽.

후 동학을 위시하여 발흥한 수많은 신종교까지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면서도 어느 한 종교 또는 신념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를 완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도 못하다. 이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종교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주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이때 개별 종교들은 그들만의 신념체계의 맥락에 입각하여 각자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보편적 윤리 및 사상체계에 입각하여 현대 문명의 질환을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어느 일방의 신념체계에서는 다른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역설이 될 수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은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체계의 절대화와 배타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 종교들이 서로 자종교의 교리만을 고집하고 교세를 확장하려 한다면 종교 상호간의 공존은 위태로우며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종교의 포교 의지와 현대 사회의 질서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이 다종교 상황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땅밟기” 사건으로 촉발된 종교적 갈등의 문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종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한국 사회는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전형적인 다종교 사회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한 종교가 독점하지 못하고 여러 종교가 나누어 갖게 될 때 종교 간의 알력과 반목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 극단적인 종교 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종교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사회는 민족의 형성사에 있어 단일 민족적 이념에 근간한 국가로 강력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사회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종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종교로 인한 단위 공동체 간의 분쟁의 소지는 적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 분열이나 개성보다는 원융과 회통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민족 형성사적 특징과 한국인의 종교 문화적 성향 때문에 종교들 간의 갈등과 알력이 억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종교적 갈등 요인이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체류 외국인의 다양한 종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2호(대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103-104쪽.

〈표 1〉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및 종교현황²⁰⁾

*2011.4.30.,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요종교 ²¹⁾
총계	1,354,414	1,185,869	168,545	
중국 ²²⁾	667,488	594,266	73,222	
(한국계)	(447,601)	(426,164)	(21,437)	
미국	133,576	127,237	6,339	개신교, 천주교
베트남	111,495	95,199	16,296	불교
일본	52,787	51,958	829	
필리핀	49,071	37,580	11,491	천주교
타이	42,080	29,423	12,657	불교
몽골	30,788	20,037	10,751	라마불교
인도네시아	29,846	24,811	5,035	이슬람
우즈베키스탄	28,843	23,287	5,556	이슬람
타이완	25,513	24,607	906	
캐나다	21,478	20,825	653	개신교
스리랑카	19,436	17,449	1,987	불교, 힌두교
캄보디아	13,711	12,516	1,195	불교
방글라데시	13,328	7,986	5,342	이슬람
네팔	11,383	9,585	1,798	힌두교, 불교
파키스탄	10,711	7,643	3,068	이슬람
러시아	10,520	9,254	1,266	러시아정교
인도	7,638	6,312	1,326	힌두교
호주	7,393	7,175	218	개신교
영국	6,235	6,171	64	성공회
미얀마	5,358	4,102	1,256	불교
홍콩	4,808	4,601	207	
독일	3,802	3,709	93	
기타	47,126	40,136	6,990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4월호(2011.5.), 10쪽.

21)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은 종교 인구가 매우 적거나, 다수 종교가 없거나, 종교적 정체성이 다중적인 양상을 보, 주요 종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제14호(오산: 한신인문학연구소, 2010), 16쪽 참조.

22) 중국계 한국인 포함.

대다수 체류 외국인의 사회에서는 한국의 종교 상황처럼 개인 각자가 주체적으로 종교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종교는 선호(選好)의 문제를 넘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직결된다. 곧 그들에게 종교는 이미 바뀔 수 없는, 혹은 함부로 다루어질 수 없는 절대 신념체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슬람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종교란 단순한 문화 외형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를 구성하는 심층적 바탕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8월 국내에 거주하는 113만 3,874명의 외국인 중 무슬림은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한국에서 활동 중인 무슬림이 11만 4,79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숫자다. 2년 만에 특정 종교의 외국인이 3만 5,000명이나 유입된 것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는 이주민의 1/10이 넘는 수치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종교적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슬림’ 자녀들에게도 이슬람 문화를 적극 전수하고 있다.²³⁾ 또한 각 지역의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안양, 안산, 부평, 파주, 광주(경기) 지역에 이슬람 시설로 신축된 ‘성원(마스지드)’이, 그리고 포천, 인천, 서울 송파, 제주, 대전, 김포 등지에 교회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센터’가 설립되었다.²⁴⁾

출신 국가별 신자구성을 보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세 나라 출신자들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아랍국가 등 중동 출신 무슬림들은 전 세계 무슬림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아랍 출신은 그 비중이 높지 않다. 따라서 아랍 출신의 경우 여성들의 결혼 이민은 거의 없고, 이집트 출신 등 남성들의 노동 이민만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⁵⁾

그러나 무슬림은 테러집단이라는 편견을 근거로 공공연한 차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무슬림의 유입에 대해 서구의 이슬람 공포증이 국내에서도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슬림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이슬람 확장을 획책하고 있다”거나 “한국에 들어온 2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좌파세력과 연계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는 특정 종교단체에 기반한 반이슬람 운동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²⁶⁾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결코 우리 사회의 일만은 아니다. 세계 어디서든 다문화사회 구

23) 조희선, 〈한국 무슬림 정착에 종교커뮤니티가 중요한 역할〉, 《크리스찬투데이》, 2010.5.4.

24) 한국이슬람교중앙회, *Islam in Korea*(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8), 18쪽.

25)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권 1호(용인: 한국중동학회, 2009), 210-211쪽.

26)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2호(대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103-104쪽.

성원 사이에는 민족적 전통과 정서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일찍이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이민을 받아들였던 서구사회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념적으로는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 문화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종 용광로의 동화주의에서 1960년대의 비판 문화적 다원주의와 민권운동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한 미국, 영연방의 다인종 수용 정책에 따라 다문화 관련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한 영국, 노동자 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계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다문화정책을 펼쳤던 독일, 1968년 이후 백호주의를 폐기하고 1973년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던 호주 그리고 1970년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maghreb) 출신 이민자들을 수용하여 3D업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동화주의를 추진하였던 프랑스 등이 모두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정·포기하거나 후퇴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²⁷⁾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빚어낸 중심에 종교문제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먼저 프랑스의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은 2005년 11월 프랑스의 도시 전역에서 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마그레브 출신이 일으킨 폭동으로 위기를 겪었다. 영국도 2005년 7월에 런던지하철 폭탄테러로 무슬림들의 극단주의가 문제시되면서 다문화주의 기조가 후퇴하였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펼쳤던 호주도 2005년 12월 시드니 크루놀라 해변에서 일어난 인종 충돌 사건이 기독교와 무슬림의 대결로 비화되면서 2007년 들어 하워드 정부는 결국 다문화주의를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했던 국가들이 종교 갈등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⁸⁾

역사적으로 볼 때, 유입된 사상에 대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었던 한국의 종교문화가 과연 여타의 국가들이 겪었던 종교 갈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사회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당면 과제 중 하나는 갈등을 조장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종교 문화적 문제가 상존해 있음을 인식하여 혹시나 우리 사회가 겪게 될지도 모를 종교적 갈등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경기도 가운데 포천시는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6.4%로 나타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⁹⁾ 이에 포천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포천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회의’ 구성, ‘포천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설치, ‘포천 다문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거주 외국인 시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

27) 박승길, 앞의 글, 127-128쪽.

28) 박승길, 앞의 글, 128쪽.

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³⁰⁾ 이에 대해 대진대학교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이러한 정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포천시가 거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잠재적 갈등 요인이 내재된 다문화사회의 종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안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사회 정책과 관련한 종무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개입 혹은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종교간 균형과 공존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을 통해 바람직한 종교문화의 방향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IV.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주지하다시피, 대순사상은 19세기 말 증산 강일순에 의하여 연원된 종교사상이다. 그는 한국 근대 사회의 여명기에 수운, 소태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겪었던 격동의 시공간을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종교사상을 주창한 종교가이다.

근세 조선사회를 뒤흔든 혼란은 가히 총체적이랄 수 있었다. 우선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에서 확산된 ‘동학’은 새로운 종교적 가치관과 정치적 지도이념을 요구했던 민중들에게 신종교로서의 매력에 충분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동학의 실패는 그러한 기대에 차있던 일반 민중들을 회의하게 하였다.³¹⁾ 동학혁명은 고래로 전하여 오던 ‘궁을(弓乙)’과 ‘진인(眞人)’ 사상을 동학군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수용하였다. 이에 동학의 선두주자였던 고부 출신의 전봉준은 동학군들 사이에서는 진인

29)

시·도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비율
		계	남	여	
안산시	706,323	41,785	22,867	18,918	5.9%
의정부시	430,339	6,566	2,830	3,736	1.5%
화성시	471,187	24,914	17,642	7,272	5.3%
포천시	159,759	10,291	7,217	3,074	6.4%
과천시	71,302	631	274	357	0.9%

*자료 :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 인구 현황 자료의 재구성으로 일부만 표기.

30) 『포천시 다문화 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6쪽.

31) 윤이흠, 『한사상과 민족종교』(서울: 일지사, 1990), 313-319쪽.

으로 믿어졌었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들의 동학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지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이 실패하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그 기대와 신뢰는 회의와 허탈감으로 바뀌었다.³²⁾

여기에 쇄국정책의 실패에 의한 문호개방과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서구문화는 국내의 보수적 전통문화와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화 갈등으로 일반 민중들은 급기야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서 극심한 혐오와 저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민중들의 종교적 적대감은 기해(己亥), 병인(丙寅) 등의 박해 이후 다소 수그러졌던 서학(西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들어오는 초기 개신교의 정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³³⁾ 또한 전래적인 종교였던 유교와 불교 및 도교는 당시의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위안과 가치 있는 이념을 기층 민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역사적 또는 사회적 급변기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회병리는 당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 이념과 정신적 안식처를 갈망하게 만들었다.³⁴⁾

따라서 근세 조선사회의 종교·문화적 상황은 사회구조의 재분야와 마찬가지로 궤도 수정을 필요로 했다. 기층의 민중들은 생의 혼란에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안전한 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표상체계와 신념체계를 요구하였다. 이는 한국 신종교가 가지는 공통의 종교 사상 중 하나인 미륵하생 신앙에서 보듯이 당시에 처해 있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현재적 안위와 종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의미의 변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소박한 신앙적 전통으로 일관했던 우리 민족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이다.³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순사상은 증산에 의해 출현했으며 기층 민중들의 심의(心意)에 서서히 다가간 것이다.

증산은 당시의 정신적 고뇌에 시달리는 일반 민중의 종교적 구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종교적 의식은 여러 사상으로 구현되었는데 그의 대표적 개념을 ‘대순(大巡)’으로 표현하고 있다. 증산을 믿고 따랐던 당대인들은 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三界)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

32) 윤재근, 『한국 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대동철학』 제23집(부산: 대동철학회, 2003), 560-563쪽 참조.

33)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서울: 카톨릭출판사, 1982), 817-832쪽.

34) 윤재근, 앞의 글, 564-568쪽 참조.

35) 윤재근, 『증산사상의 불교 수용과 해석』, 『신종교연구』 제23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0), 177-183쪽 참조.

하셨도다.³⁶⁾

위의 내용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당시의 종교적 공백에서 보이는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성화(聖化) 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증산이 상제(上帝)로서 이 땅에 현현(顯現)하기 전에 ‘대순’이라는 종교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순은 대순사상에서의 종교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기초 작업이다.³⁷⁾

증산은 그의 사후 발견된 병세문(病世文)³⁸⁾에서 확인 되듯이 세상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여 윤리도덕이 무너졌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인을 상도(常道)의 상실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상도가 무너진 것은 상극의 지배 원리와 그로 인해 양산된 원(冤)이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하였다. 증산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통해 교화의 대상을 인간 본연(本然)에 초점을 둔 전통적 시각과는 다른 독창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즉 병든 사회를 본연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적 차원에 국한하여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의 전체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천지공사라는 독창적 종교 행위로 이어졌으며 인간과 외계사물 모두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³⁹⁾

그런데 그 성현(聖顯)의 장소로 증산은 ‘동토(東土)’를 선택하였다. 이는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⁴⁰⁾과 같이 억압을 받았던 원울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만고에 쌓인 원’을 풀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특수한 지역, 다시 말하면 조선이라는 구체적 지명과 그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한다는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천지공사의 독자성과 보편성은 ‘개벽’과 ‘인존’ 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⁴²⁾

36) 『전경』 예시 1절.

37)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대순사상논총』 제15집(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2), 142-148쪽 참조.

38) 『전경』 행록 5장 38절.

39) 윤재근,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종교교육학연구』 제3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58-163쪽 참조.

40) 『전경』 권지 1장 11절.

41) 윤재근, 『증산의 유교 비판관 수용』, 『종교교육학연구』 제3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85-87쪽 참조.

위의 내용에서 천지공사의 단면을 논리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삼계공사의 근본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천지공사는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상도를 잃었다고 진단한 그의 부정적 현실관에 기인한다. 즉 우주의 전체 질서가 본질적 행위규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참혹하고 혼란스러워졌다고 진단한 것이다. 삼계공사는 이러한 무질서의 타개책으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폐단과 현실적 상극의 실상이 그르친 우주질서의 혼란을 본질로부터 문제 삼아 ‘천지도수(天地度數)’의 조정이라는 우주 질서의 재정립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하여 온 종교전통인 유불선의 사상적 정수를 뽑아 사용함으로써 후천이라 일컫는 새로운 종교적 이상의 세계를 열고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조된 후천은 일심으로 신념하는 자세와 선(善)에 기반을 둔 윤리적 행위를 요청 받는다.⁴³⁾

대략적으로 살펴본 증산의 종교사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종교사상을 구현하면서 이미 여러 종교의 효용성을 수용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후천에는 “판이 넓고 복잡하다”. 본 논문에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다민족 또는 다문화에 대한 소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증산의 문헌적 전거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그가 그린 이상세계의 큰 그림에는 “천하가 한집안”이 되는 통합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⁴⁴⁾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仙境(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⁴⁵⁾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⁴⁶⁾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그려낸 이상세계의 도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개창 당시의 증산의 종

42) 『전경』 공사 1장 3절.

43)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58-260쪽 참조.

44) 『전경』 교법 3장 23절.

45) 『전경』 권지 2장 37절.

46) 『전경』 예시 12절.

교사상에서는 이미 “각 민족들의 문화의 정수를 건거나”, “여러 갈래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후천의 기틀을 짜 놓았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갈등 특히 종교적 갈등의 문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문화현상이 확산되면 될수록 표면화 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외국 이주민들의 피부색이나 언어, 관습 그리고 문화로서의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그것을 백안시하거나 틀렸다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의미하는 바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고 갈등 없이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래서 증산은 상생을 주창한다. 상생의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는 증산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인 ‘인존(人尊)’인 것이다. 인존사상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고 주변의 외계사물과 아울러 병존해야 한다는 통합적 인간관이다. 증산의 문화적 사고방식에는 전체와 분리된 개체, 전체와 무관한 개별적 존재는 원래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상적 기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이제는 우리 문화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다. 더 이상의 예견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문화의 정수를 모아 새 세상의 기틀을 짜겠다는 증산의 종교사상에서 시사 받을 수 있겠다.

대순사상에 기초하여 대순진리회는 경기도 포천시에 대진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장에서 살펴본 대로 경기도 포천시는 이주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대진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주 외국인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문화적 다원주의, 교육의 평등, 인종의 문제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문해 교육, 기초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개발 관련 문화, 건강, 예술, 여가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운영되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러므로 대진대학교의 다문화교육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배움터를 지향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상대의 세계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교차시킴으로써 지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도 한다. 특히, 방과후 교실로 운영되는 ‘꿈나무 안심 학교’는 맞벌이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상담 결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 소통의 방법을 체득하며 공존·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적 역량을 확대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⁴⁷⁾ 다문화사회에서 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극소화하자는 취지이

47) 안병환,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 접근방향 탐색』, 『한국교육논단』 제8권 제2호(서울: 한국교육포럼, 2009), 156-158쪽.

다. 증산이 말한바, 천하가 한집안이 되자는 공동체 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다문화사회라는 구호 속에 인류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등’의 가치일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일차적 문제는 인류 스스로가 지녀야만 하는 공통의 가치관이다. 한때 문명 간의 충돌이 논의되면서 그 충돌을 증명하기 위한 사례들은 충분히 제시되었다. 하지만 문명의 충돌을 넘어 문명 간의 이해와 교류 그리고 문명 간의 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박약했다고 본다.⁴⁸⁾ 다문화사회에서 다민족들의 문화나 종교가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조화로운 공동사회를 지향하려면 역시 함께 신뢰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윤리적인 기준이나 가치관마저 이질적이며 대립적이라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칸트도 말한 바 있듯이, 평화란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보편적인 이성의 법이 실현된 상태에서만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영구적 평화(Pax Perpetua)’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⁹⁾

이에 본 연구자는 각 지역의 주민과 이주민들이 갈등 없이 원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각 지역의 거점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들 교육기관의 지역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평생 교육을 통한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착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등 법적 문제로 인한 이주민 2세들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이주민 2세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셋째는 상생의 이념을 기조로 한 사회적 통념의 전환이다. 이미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외국인 귀화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 추세이다. 더 이상 민족적 정서에 호소할 일이 아니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이념적 토대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 외재적 위협과 내재적 모순은 대순사상을 비롯한 무수한 신종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증산은 고해에 빠진 기층 민중들에게 천지공사를 통한 개벽과 인존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후천에는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

48) 김명섭, 『상생의 국제질서와 세계정부』, 『국제이해교육』 제7호(서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2), 45쪽.

49) 엄정식,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평화의 철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172-173쪽.

지 않고도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지상선경⁵⁰⁾이 건설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종래의 원한을 풀고 어떠한 원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이타행으로써의 대타적 가치관인 ‘상생(相生)’을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다. 증산이 선천의 상극시대를 넘어서 후천의 상생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정표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노정에 있어 상생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종교정책에 있어 충분한 가치관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지상선경”은 갈등 없이 정착된 다문화사회의 공존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50)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전경』 예시 81절).

참고문헌

『전경』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0.6.

『국토비전 2050 수립 추진(II)』. 국토해양부. 2010.2.

『포천시 다문화 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나남. 1993.

김명섭. 「상생의 국제질서와 세계정부」. 『국제이해교육』 제7호. 서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2.

김인희. 『한국인의 교육학』. 서울: 이성사. 1980.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2호. 대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2008.

박송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서의 종교적 갈등」. 『민족연구』 제42호. 서울: 한국민족연구원. 20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4월호. 2011.5.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안병환.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 접근방향 탐색」. 『한국교육논단』 제8권 제2호. 서울: 한국교육포럼. 2009.

엄정식.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평화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제14호. 2010.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카톨릭출판사. 1982.

윤이흠. 『한사상과 민족종교』. 서울: 일지사. 1990.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대순사상논총』 제15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2.

_____. 「한국 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대동철학』 제23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3.

_____.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_____.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종교교육학연구』 제3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_____. 「증산사상의 불교 수용과 해석」. 『신종교연구』 제23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0.

_____. 「증산의 유교 비판과 수용」. 『종교교육학연구』 3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이광규.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이삼식.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제172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상호.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프레시안>. 2009.9.8.

조웅태.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과 다문화가정」. 『신종교연구』 제21집. 서울: 한국신종교학

회, 2009.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권 1호, 용인: 한국중동학회, 2009.

_____. 〈한국 무슬림 정착에 종교커뮤니티가 중요한 역할〉, 《크리스찬투데이》, 2010.5.4.

원고접수 : 2011년 6월 22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윤재근

① 전공 :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③ 주요논저 : 종교와 인격교육,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환경보존 의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④ E-mail : jkyoun@daejin.ac.kr

Abstract

**A Proposal by Daesoon Thoughts for Living Together in
Multi-cultural Society**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It was after 2005 that Korean people started focusing on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e. Moreover according to an article by UN, although Koreans have unusual ethnic pride, the Korean society at 2050 will b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13.9% of the whole population married to a foreigner. Right now in April 2011, 2.8% of the population is foreigner living in Korea and that is 1.35 million in numbers. However the foreigners do tend to face discord when they have difficulties following Korea's culture. What matters more is that there is no properly prepared ways by Korea's government to prevent or countermeasure these difficulties faced by foreigner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 religious matter the discord arises even further. Due to the fact that religion is strictly exclusive in the fields of faith and experience, the discord can then become a social issue. Religion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composition of society and it embraces ethnic identity. Moreov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ligion allows various members of that society to express themselves and accept others. Most of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can not 'choose' their religion on their own. Muslim is a good example for this. They create and belong in their own religious community and tries their best to keep the identity and culture of their own. The culture is passed down very enthusiastically even to 'Ko-slim', child between Korean and Muslim. In this multi-cultural world, we must balance globalization and 'Korean-ization', and to do that we must learn to co-exist with the foreigners. So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multi-cultural effect in Korea's society, and would like to consider the proposal by Dae-soon Thoughts for living together and co-evolving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y, Religious Discord, Co-evolving and Living Together, DaeSoon Thoughts